

융복합시대에 『소학』을 통해 본 인성교육의 현대적 가치

차현주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Modern Values of Character Education Observed through Sohak in Convergence Era

Hyeon-ju Cha

College of Social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요 약 오늘날과 같은 융복합 시대에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실천지향적인 학문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최근 우리사회는 입시위주의 경쟁사회에 대한 각성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인성교육의 방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실천적 관점에서의 인성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주로 인문학적 소양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 인성교육이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융복합시대가 지향하는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우리의 전통교육에서 인성교육의 근간을 이루었던 소학의 현대적 가치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소학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소학의 내용과 교육방법은 실천 지향적인 인성교육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소학에 나타난 전통사회의 소중한 정신적 가치와 문화는 현대적으로 창조적 계승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융복합시대 유아나 아동들에게 인성교육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소학, 인성교육, 융복합 시대, 아동, 지식교육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modern social phenomenon on child education which still, heavily focuses on knowledge transfer where in the past, traditional society emphasized its focal point on character education. At this, character education plans from various angles have been performed. However, the timely request for character education is becoming more desperate in demand. Therefore, the research has contemplated on Sohak, which was the foundation of character education in Korean traditional education, and recognized necessity to review its modern values as the convergence era has approached our society. Modernization of Sohak's teachings to approach modern issue of character education in our society will hold significant value because of its creative inheritance of psychological values and culture to children from the traditional society.

Key Words : Sohak, Character Education, Convergence era, Children, Knowledge education

Received 1 September 2016, Revised 1 October 2016
Accepted 20 October 2016, Published 28 Octo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Hyeon-Ju Cha
(College of Social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Email: hjcha2016@gmail.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새로운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는 오늘날에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는 미래사회 인재의 핵심역량으로 지적 능력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력, 소통과 공감, 정직과 책임, 창조적 도전과 열정 등을 손꼽고 있다. 이러한 OECD의 연구결과는 단편적인 지식교육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문제해결력을 갖춘 실천적 지식의 수행적 성격을 강조하는 인성교육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세계적 흐름은 최근 우리사회에도 인성교육 진흥법(2015)이 법제화되어 핵심덕목으로는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력 등을 두고 핵심역량으로는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능력을 선정하여 정책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의 보편화, 친족망의 약화, 저출산의 확산 등으로 인성교육을 주로 담당하던 가족의 기능은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1]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경쟁위주의 사회구조와 맞물려 사회진반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전통사회에서 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던 사람의 도리와 인간관계를 강조한 인성교육의 가치덕목은 지식교육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인성교육의 부재에 따른 사회적 병폐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학(小學)』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성교육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변적 타당성이 입증되어 왔다. 『소학』에서는 기본생활교육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도리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것은 성찰과 실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소통과 협력을 일상생활에서 체득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오늘날에 인성교육에 필요한 덕목을 충분히 지녔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학』을 통하여 인성교육의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성교육에서 추구하는 인성은 선천적이면서 개인적인 특성이 강한 반면에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후천적으로 환경과 교육에 의하여 변화하며 형성되어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학에 나타난 다양한 교육적 방법과 내용들은 인성교육의 중요한 지침으로 인성의 가치덕목과 인성역량을 재정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소학』에 대한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소학』의 현대적 가치를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소학』에 대한 연구논문과 관련서적을 중심으로 문헌을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제한점은 국내의 한정된 연구논문들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소학』에서 강조한 인성교육은 무엇인가?

둘째, 『소학』의 현대적 가치는 무엇인가?

2. 소학의 내용과 선행연구 분석

2.1 소학의 체계와 내용

『소학』은 아동들에게 개인적 차원에서의 기본생활 규범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도리를 교육했던 중국의 아동교육서이며 실천서이다. 즉, 다양한 옛 경전 중에서 일상생활의 규범과 수양을 위한 격언, 충신과 효자의 역사적 기록 등 『소학』의 가르침과 관계되는 내용들을 선별하고 발췌하여 선현들의 언행을 엮어 놓은 동양의 대표적인 수신서이다.

『소학』은 크게 내·외편 총 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학』은 책의 서두인 서문에 해당하는 「소학서제(小學書題)」와 「소학제사(小學題辭)」·「소학집주총론(小學集注總論)」을 두어 소학의 편찬 의도를 서술하였고 내편(內篇)으로는 「입교(立敎)」·「명륜(明倫)」·「경신(敬身)」·「계고(稽古)」의 세 가지 기본 강령과 외편(外篇)으로는 「가언(嘉言)」·「선행(善行)」을 두고 있다. 내편(內篇)에서는 한(漢) 이전의 문헌을 통해 사람이 행해야 할 윤리와 도리를 명확히 하였으며 외편(外篇)에서는 주로 송대 사대부의 언행과 행적을 모범사례로 입증함으로써 그들의 행적을 거울삼아 완전한 인격으로 완성해 가도록 개인의 내면화를 장려하는 구체적 실례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입교」·「명륜」·「경신」은 내(內)이며 본(本)이고, 「가언」·「선행」은 외(外)이며 말(末)이라 할 수 있다[2].

내·외편에 해당하는 「입교」, 「명륜」, 「경신」, 「계고」, 「가언」, 「선행」 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교(立敎)」 편은 총 13장으로 스승된 사람이 가르침을 베푸는 방법과 아동들이 가르침을 배우는 방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명륜(明倫)」 편은 총 108장으로 『소학』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친(親)·의(義)·별(別)·서(序)·신(信) 등의 오륜(五倫)의 덕목을 밝힌 것이다. 「경신(敬身)」 편은 개인의 일상적인 삶에서 내·외 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대한 일상적 규범을 서술한 것이다. 「계고(稽古)」 편은 입교·명륜·경신편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으로 성현의 사적(事績)을 실례로 들어 직접 실행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가언(嘉言)」 편은 한대 이후 송대에 이르는 성현들의 언행을 기술하여 입교·명륜·경신편의 가르침을 넓히고 있다. 「선행(善行)」 편은 한대 이후 송대에 이르는 성현들의 언행을 기술하여 입교·명륜·경신편을 실증하고 있다[2].

특히 『소학』의 내용 중에 『예기』 「왕제」 편을 보면, 아동은 8세가 되면 누구나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에 입학하여 쇄소(灑掃)·웅대(灑掃)·진퇴(進退)의 기본생활교육과 애친(愛親)·경장(敬長)·용사(隆師)·친우(親友) 등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도리에 대해 교육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쇄소·웅대·진퇴’는 “물 뿌리고 쓸며 옹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나기” 등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좋은 습관형성을 의미한다. 즉, 좋은 습관형성은 좋은 인성이 구체화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애친·경장·용사·친우’는 “아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 등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간관계의 모범적 규범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학』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습관형성과 인간관계의 모범적 규범을 실천해 감으로써 개인적 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같은 인성역량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된다.

또한 『소학』에서는 쇄소웅대와 같은 기본생활교육에서의 ‘실천과 성찰’이나 부모님, 선생님, 어른, 친구와 같은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의 ‘상호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력’ 그리고 성현의 본보기와 격언을 통한 ‘자기성찰과 실천’ 같은 가치덕목들은 현시대에 적합한 인성의 핵심 덕목이다. 더욱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찰과 실천’, 사회적 차원에서의 ‘상호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력’ 등의 가치덕목들은 오늘날의 인성교육의 근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국 『소학』에서는 생활 속에서 선(善)을 행(行)하고

실천하는 과정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도(道)에 들어가는 첫 길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인성에 내재된 가치덕목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구성해 가는 과정 그 자체가 인성함양이 되며 궁극적으로 인격교육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선을 행하고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소학』이 조선시대의 인성교육에 끼친 교육적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소학이 인성교육에서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학』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수, 공통, 선수과목으로서 교육과정상 위치를 지녔고 과거응시과목(科擧應試科目)으로 선정하여 제도적으로 장려한 인성교육의 기본교과였다는 점이다. 둘째, 『소학』은 조선왕조의 유학자와 교육자들의 교육사상과 교육방법에 많은 영향을 주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소학』은 사회교화의 기본서(基本書)였으며 여성교육의 수신서(修身書) 중에 하나여서 사회교육과 가정교육 및 학교교육을 연계해주는 실질적인 기본생활 교재였다는 점이다. 넷째, 『소학』은 사제 간의 의리를 밝혀주어 조선조의 『소학』 숭배들의 사우연원(師友淵源) 관계를 통해 기본생활 교육뿐만 아니라 폭 넓은 인간관계를 위한 내용이 함의되어 있다는 점이다[3].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학』은 조선시대 당시 인성교육의 기초교재로 널리 활용되어 개인의 인성함양뿐만 아니라 사회·국가적 영역으로 확대되어 일상적 삶속에서 자연스럽게 내재화되어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였으므로 현시대에 시의적절한 실천 지향적인 인성교육의 방안이 될 수 있다.

2.2 『소학』의 선행연구 분석

『소학』에 대한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가지 범주유형으로 나타났다. 7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소학』의 교육사적 가치와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소학』의 교육사적 가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향은(1994)은 “조선시대 『소학』의 교육적 가치(價値)에 관한 연구”에서[4] 조선이 소학을 교육하게 된 배경 및 교육사상과 내용 그리고 교육사적 가치를 연구하였다. 정형식(1999)은 “유교중심 사회에서 『소학』

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에서[5] 소학의 형성배경과 전개 및 교육내용을 분석을 통한 교육사상 및 현대적 가치를 고찰하였다. 박순남(2001)은 “고려 말 지식인의 『소학』 수용에 관하여”에서[6] 소학의 수용의 배경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소학』 교육의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관일(1992)은 “조선전기의 『소학』 교육연구”에서[7] 소학의 교육하게 된 배경, 교육이념, 교육내용과 방법 및 현대적 의의 및 가치를 규명하였다. 김경숙(1993)은 “조선조 『소학』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8] 소학의 성립과 수용·전개, 내용분석과 실행방법, 소학 역할을 향약과의 관계를 통해 고찰하였다.

둘째, 『소학』에 나타난 교육철학적 의미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이다. 오석중(1999)은 “『소학』의 덕교육론 연구”에서[9] 소학의 덕교육적 원리와 방법들을 현행 도덕·윤리교육에 재해석 및 적용방안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조현규(2000)는 “주희 『소학』의 교육철학적 의미”에서[10] 소학교육의 중요성과 시사점을 고찰하여 현대교육의 반성과 현대교육의 맹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힘을 피력하였으며 시사점으로는 인간성의 회복, 자기 성찰의 자세, 삶 속에서 실천적 자세를 제시하였다. 오세근(2001)은 “현대 교육위기를 대응하는 교육개혁 시각정립을 위한 연구”에서[11] 교육의 위기 극복 방향 정립을 위한 대응책으로 『소학』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조하였다. 신동은(2002)은 “『소학』의 실천교육 원리와 현대적 의의”에서[3] 교육방법으로 예(禮)를 통한 교육적 원리와 적용방안과 방법과 현대적 의의를 분석하여 오늘날의 인성교육의 부재를 해결하는 지침서로 소학을 강조하였다.

셋째, 『소학』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김병희(2001)는 “『소학』 공부와 『대학』 공부: 유학의 인성교육론”에서[12] 소학공부와 대학공부의 연계성을 통하여 유학의 인성교육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즉, 인성은 행위, 지식, 심성의 세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소학공부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고 대학공부는 지식과 심성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소학공부는 ‘외적 공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소학공부와 대학공부는 ‘자연적 연계성’이 된다고 하였다.

넷째, 소학의 현대적 적용과 활용에 관한 연구이다. 이경자(2000)는 “소학에 나타난 효(孝)·경(敬) 사상의 현대 교육적 의의”에서[13] 소학에서 나타난 효와 경의 사상을

현대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현실생활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통적 문화를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원(1993)은 “이조시대 소학교육의 국민윤리 성격에 대한 연구”에서[14]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윤리사상에 영향을 미친 소학교육의 가치를 고찰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오늘날에 계승 발전시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적 사고방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한 윤리 교육적인 측면을 연구하였다. 광성기(1988)는 “조선조 소학의 교육적 연구”에서[15] 소학이 도입배경과 사상적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조선조 소학의 교육 실재를 고찰하고 도덕교재로서의 소학을 편별(篇別), 시대별(時代別), 본문출처별(本文出處別), 도덕내용별(道徳内容別), 기본사상(基本思想)을 분석하여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용주(2004)는 “『소학』을 통한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 교수·학습 방안 연구”에서[16] 소학의 체계와 내용구성을 통하여 소학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와 교육적 방법들을 통하여 초등 도덕과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와 실제적인 교수·학습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최재영(2012)은 “『소학』을 활용한 초등학교 도덕교육방안”에서[17] 소학의 교육적 의미와 교육방법을 강조하면서 소학의 교육방법을 활용한 초등학교 도덕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학을 통한 인성교육과 교육방법 그리고 소학의 현대적 적용과 활용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도덕교육에서 많이 활용됨을 알 수 있다.

3. 인성교육의 최근 연구동향

인성은 성품, 성질, 품격, 인격, 도덕성 등으로 다양하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인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이다. 그리고 ‘성품’이란 “성질과 품격”으로 ‘성질’은 ①정신적(심리적)인 바탕” 혹은 ②사물이나 현상이 본디부터 지니고 있는 독특한 바탕을 의미하고, ‘품격’은 ①물건의 좋고 나쁨의 정도” 혹은 ②품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종합해 보면 인성이란 사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바탕으로 그 사람의 품격, 즉 사람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8].

인성교육을 정의한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면, 인성교육의 전통적인 개념은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길러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신차균의 연구에서는[18]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 규범을 내면화하여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품성을 형성하는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남궁달화의 연구에서는[19] 학생들이 지, 정, 의를 조화롭게 발달시켜 마음을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의 교육"으로 인성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인성교육의 개념 역시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면서 인성교육의 요소도 전통적인 요소와 함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요소가 공존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현주 외의 연구에서는[20]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국가의 일원으로 함께 살고 일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고와 행동의 습관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성(性)'은 근원적인 생명력 또는 살려는 마음 등으로서 인간을 포함한 만물 각각에게 부여되어 있는 천리(天理) 내지는 천명(天命)을 일컫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인성'은 인간에게 부여된 보편적 성품으로서 인간을 인간답도록 하는 원초적인 생명력이며 인성을 온전히 길러내는 것을 수신(修身)이라고 하며 수신을 통해 인성을 온전히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인성교육에 창의성 요소를 확장하여 창의인성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조난심의 연구에서는[21] 인성교육의 요소로 기존 전통적인 인성교육 요소 외에 창의성 등 다음 요소가 추가될 필요를 제시하였는데 이에는 자기주도성, 관용, 개방성, 사고의 유연성, 타문화이해,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등을 제안하고 있다. 안병희 외의 연구에서는[22] 21세기 인성교육은 인격교육을 중심으로 그 폭을 넓히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창의성교육에서 강조되는 민주시민교육, 소질·적성 계발 및 계발교육,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교육, 리더십을 포함한 진취적 태도 함양으로 설명하고 있다. 강선보 외의 연구에서는[23] 인성교육을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좀 더 확장된 시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계성(상호 관계적 삶을 추구하는 공생인), 도덕성(도덕적 통합성을 추구하는 인격인), 전일성(인간의 모든 측면이 조화롭게 발달한 전인), 영성(초월적인 것들을 체험하는 영성인), 생명성(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인), 창의성(삶과 상황을 재창조하는 창의인), 민주시민성(공동체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보고 21세기 인성교육을 주체적이

고 능동적인 사유와 행위를 통하여 ①자기 삶의 중심을 스스로 세우고 자기성찰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②상생(相生)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③21세기 인성교육은 물질문명에 매몰되지 않고 인류의 근본경험에 속하는 초월성(또는 신성, 영성)을 삶의 핵심적 계기로 추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을 인성교육의 추진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김신의 연구에서는[24]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인성교육요소는 인간관계 덕목요소가 인성의 판단력 요소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인간관계 덕목에는 정직이나,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 등 의 하위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도덕적 판단력이나 의사결정 능력과 같은 인성의 판단력보다는 기본덕목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

4. 소학에 나타난 인성교육의 함의

4.1 소학에 나타난 인성교육의 원리

먼저 『소학』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학의 영역에 따라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찰과 실천'의 원리이다. 먼저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생활규범을 실천함으로써 선을 행하는 것이다. 「경신」에서의 구사 구용의 내용은 일상적 삶에서의 구체적인 행동강령으로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사는 『논어』 「계씨(季氏)」 편에서 발췌하여 「경신」 편에 인용된 것이다.

불 때 가려진 것이 없이 분명하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들리지 않는 것이 없이 들을 때는 똑똑히 들을 것을 생각하고 얼굴빛은 항상 온화하게 가질 것을 생각하고 몸가짐이 반듯하면 씩씩하지 않음이 없으니, 항상 용모는 공손할 생각을 하고 말할 때는 항상 충직하게 할 생각을 하고 일은 한 가지를 하더라도 경건하고 신중하지 않음이 없으니 일은 경건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반드시 먼저 깨달은 자에게 나아가 살펴 물어서 알지 않고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니 의심 나면 물을 생각을 하고 분[화]이 나면 어려움이 생길 것을 생각하고 분이 나면 반드시 징계하되 이치로써 스스

로 극복해야 하며, 이득을 보면 의를 생각하라. 재물을 얻게 되면 반드시 정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정당하면 취하되 정당하지 못하면 버릴 것을 생각하라

또한 구용(九容)에서도 『예기』 「옥조」 편에서 발체하여 「경신」 편에 인용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바람직한 개인의 용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발의 용모는 무겁게 움직여야 한다(足容重). 즉 경솔히 거동하지 않는다 만일 어른이 앞으로 나갈 때 발이 걸려서는 안 된다 손의 모양은 공손해야 한다(手容恭). 눈의 용모는 단정해야 한다(目容端). 입의 용모는 신중하게 가져야 한다(口容止). 소리의 용모는 조용하게 하여야 한다(聲容靜). 머리는 반듯하고 똑바로 가져야 한다(頭容直). 숨소리는 정숙하게 가져야 한다(氣容淑). 서 있는 용모는 의젓하여야 한다(立容德). 얼굴의 용모는 태만한 기색 없이 장엄하게 하여야 한다(色容莊).

다음으로는 성찰은 성현의 본모기를 통하여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성현의 언행, 격언, 행적을 귀감으로 삼아 자신을 비추어 성찰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소학』의 「가언」과 「선행」에 등장하는 고사들은 아동의 행동기준의 실제 모범 사례로서 과거의 성현의 행적을 통해 후대의 학습자들이 선행에 익숙해지고 자기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기준을 삼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져 있으며 이것은 유가적 전통에서 성현이 남긴 경전에서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삼으면서 자기성찰의 계기를 맞이하는 것이다[13]. 이러한 성현의 본모기를 통하여 선하고 어진 인물들의 행실을 좇아서 배우고 성찰하며 선을 추구하는 대목은 다음과 같이 「가언」 편에서 살펴볼 수 있다.

『논어』를 읽은 자가 만일 제자가 물은 것을 곧 자신이 물은 것으로 생각하고 성인(聖人)이 대답한 것을 곧 오늘날 자신의 귀로 들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자연히 인음이 있을 것이다

<안씨가훈>에 말하였다. “책을 읽고 학문을 하는 까닭은 본래 마음을 열고 눈을 밝혀 행함에 편히 하고자 해서이다”

오늘에 한 가지 어려운 일을 행하고 내일에 한 가지 어려운 일을 행하면 오래되면 자연히 견고해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기본생활규범을 수행함으로써 귀감이 되는 본모기를 통하여 자기성찰을 통하여 자기향상과 선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학』 교육에서 함축되어 있는 성찰과 실천은 현대 인성교육에서 강조하는 실천지향적인 인성교육의 실제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의 ‘협력과 소통’, ‘상호존중과 배려’의 원리이다. 먼저, 「입교」 편에서는 스승된 사람이 가르침을 베푸는 방법과 아동들이 가르침을 배우는 내용으로 하고[26] 애친(愛親)·경장(敬長)·용사(隆師)·친우(親友)의 교육내용은 부모와의 관계성, 어른과의 관계성, 스승과의 관계성, 친구와의 관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부모, 스승과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협력과 소통’의 가치를 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협력과 소통’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선(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입교」 편에서는 태교에서 교육이 시작됨과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애친(愛親)·용사(隆師)·친우(親友)의 소학에 나타난 내용은 부자간의 효도와 자애를 통한 상호존중과 배려, 스승과 제자간의 존경과 돌봄을 통한 상호존중과 배려, 친구간의 신의와 믿음을 통한 상호존중과 배려가 내포되어 있다. 결국 사회적 차원에서는 ‘관계와 소통’이라는 측면에서의 ‘협력과 소통’, ‘상호존중과 배려’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아동에게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같은 인성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4.2 소학에 나타난 인성교육의 핵심가치

최근 우리사회는 사회전반에 인성교육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면서 정책적으로도 강화하는 추세이다. 2013년 8월에 발표된 <「배려」와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안)>에서도 이를 보고하고 있다. 즉 인성교육의 핵심 덕목으로 ‘나’와 관계되는 정직, 책임, ‘우리’와 관계되는 존중, 배려, 공감, ‘사회’와 관계되는 소통, 협동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실천적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문화 개선, (2)가정에서 시작하는 인성교육

체제 구축, (3)인성을 중시하는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즉 실천과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의 수행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인성교육법 제2조 2항은 핵심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 3항에서는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인성교육의 10대 덕목을 살펴보면 신용, 타인존중, 책임감, 공정(정의), 배려, 시민정신, 정직, 용기, 성실, 통합성으로 정의하였고 중국에서는 개인·사회적 차원, 지역·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 국제적 차원으로 인성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존의 지식중심의 내용만이 아니라 핵심역량을 강조하여 미래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가르쳐야 한다고 인성교육에서의 가치덕목과 인성역량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때의 인성은 성품과 역량을 말하며 인성교육이란 본래의 성품을 갈고 닦으며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적 노력으로 본 것이다. 특히 인성교육의 내용으로 전통의 우수한 문화유산 가운데 창조적 계승을 강조하고 있으며 과거 전통사회의 인성교육의 근간이었던 ‘덕’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소학에 근거한 인성교육의 현대적 내용으로 가치덕목과 인성역량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Borrow 외(2014)가 제시한 인성교육의 사회·정서적 측면을 강조한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Self-Awareness	• Ability to accurately recognize one's emotions and thoughts and their influence on behavior.
Self-Management	• Ability to regulate one's emotions, thoughts, and behaviors effectively in different situations.
Social-Awareness	• Ability to make constructive and respectful choices about personal behavior and social interactions on consideration of ethical standards, social norms.
Human Relation	• Ability to establish and maintain healthy and rewarding relationships with diverse individuals and groups.

다음은 소학에서의 출전을 근거로 하여, 현대 인성교육의 관련개념을 연결하여 현시대에 맞는 인성교육의 요

소와 덕목을 도출한 것으로 <Table 1>과 같다.

<Table 1> Differences between Personal Dimension and Social Dimension

Contents by Sohak	Modern Elements & Virtue by Sohak	Conceptual Connection
Setting up Principles of Education(立教)	• Collaboration • Doing the Good	• Social-Awareness
Clarifying Basic Ethics(明倫)	• Mutual Respect • Doing the Good	• Human Relation
Pious Acts(敬身)	• Introspection & Practice • Doing the Good	• Self-Management
Consideration of the Past(稽古)	• Introspection & Practice • Knowing the Good	• Self-Awareness
Good Words(嘉言) Good Action(善行)	• Introspection & Practice • Desiring the Good	

다음은 소학을 토대로 인성교육에서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특징을 살펴본 것으로 <Table 2>와 같다.

<Table 2> Modern Traits between Personal Dimension and Social Dimension through Sohak

Class	Personal Dimension	Social Dimension
Differences	• INTER	• INTRA
Points	• Internalization	• Mutual Respect
Elements	• Self Awareness • Self Management	• Social Awareness • Human Relation
Concrete Elements	• Introspection • Practice	• Respect • Caring • Collaboration • Communication
Results	• Private Cultivation	• Reciprocity
Commons	Doing the Good	

소학을 통해 본 인성교육의 궁극적인 가치는 선(善)을 알고 행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첫째, 선을 아는 것(knowing the good)과 관련된다. 이는 윤리적 인식, 덕에 대한 이해, 관점 채택, 윤리적 추론, 사려 깊은 의사결정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둘째, 선을 바라는 것(desiring the good)과 관련된다. 이는 양심, 자기존중, 감정이입, 좋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겸양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셋째, 선을 행하는 것(doing the good)과 관련된다. 이는 ‘성찰과 실천’, ‘협력과 소통’, ‘상호존중과 배려’ 등의 가치덕목이나 의사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과 같은 인성역량을 포함한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찰과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는 ‘정직’, ‘책임’, ‘성찰’의 덕목을 함축하고 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관계와 소통’이라는 측면에서의

‘협력과 소통’, ‘상호존중과 배려’의 덕목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학은 현대 인성교육의 적합한 가치덕목과 인성역량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의미 있는 활용자료가 될 것이다.

5. 결론

『소학』은 사람을 만드는 근본틀이라 하여[15] 『소학』의 가르침은 태교에서부터 시작하며 유년기의 생활속에서 기본생활규범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도덕적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적 체험을 중시한 것이다[15] 이것은 최근 우리사회가 사회전반에 인성교육에 대한 실천을 강화하고 옛것의 좋은 것을 현대에 재조명한다는 측면에서의 융복합의 시대적 흐름과도 맥을 함께 한다. 따라서 소학과 인성교육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최근 인성교육의 동향과 가치덕목과 인성역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인성교육의 최근동향은 전통적인 인성교육 요소 외에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인성의 개념이나 요소를 추가하거나 확장하여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있었으며 개인이나 가정 뿐 만 아니라 국가로의 사회적 연결망을 확대하여 인성교육을 지원하려는 교육적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소학에 나타난 인성교육의 원리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찰과 실천’이라는 측면에서의 ‘정직’, ‘책임’, ‘성찰’의 덕목을 강조하였으며 사회적 차원에서의 ‘관계와 소통’이라는 측면에서의 ‘협력과 소통’, ‘상호존중과 배려’ 등이 나타났으며 이는 인성교육의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자기성찰을 통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축되어 있었다. 셋째, 소학에 내재된 인성의 가치덕목인 ‘성찰과 실천’, ‘협력과 소통’, ‘상호존중과 배려’ 등은 현대 인성교육에 풍부한 활용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소학의 내용과 교육방법은 실천 지향적인 인성교육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학에 나타난 전통사회의 소중한 교육적 가치들은 현대적으로 창조적 계승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인성의 영역은 도덕적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인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특히 전통교육에서의 ‘덕’에 관한 덕목의 재조명과 함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인성교육의 구성적이며 실천적 방안에 관한 향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소학교육은 인성의 내재된 가치와 덕목들을 생활 속에서 구성함으로써 실천지향적인 인성교육의 공간을 마련하는데 유아나 아동들에게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H. J. Cha, H. S. Cho,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of Parental Rearing Behavior Based on Vygotsky’s Theory of Constructivism for Developing Convergence Digital Cont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4, No. 3, pp. 453-464, 2015.
- [2] H. J. Cha, “Re-illumination of the Tea Ceremony Education through Sohak of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Tea Society, Vol. 20, No. 3, pp. 29-36, 2014.
- [3] Dong-Eun Shin, “The educational principles of practice in Hsiao-hsueh and their modern meanings,”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3.
- [4] Hyang Kim, “A Study on Educational Values of So-Hak of Chosun Age,”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4.
- [5] Young-Sik Chang, “The value of So-Hak education of society centering around confucianism,” The Graduate School of KyungSung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8.
- [6] S. N. Park, “A study on Intellectuals’ reception of Sohak at the end of Koryo,” Journal of the Dongyang Hanmoon Association, Vol. 17, pp. 69 - 92, 2003.
- [7] Kwan-Il Han, “A study of ‘So-hak’ education in the first half of the Yi-dynasty,”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92.
- [8] Kyung-Sook Kim, “A Study on the Sohak Education in Chosm Dybasty,”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3.
- [9] Seok-Jong Oh, “A Study on the theory of virtue education in 『Sohak』,” The Graduate School of

-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99.
- [10] H. K. Cho, "Significance of Educational Philosophy in Chu Hsi's 『Sohak』," *Philosophy of Education*, Vol. 18, pp. 323 - 329, 2000.
- [11] S. G. Oh, "A Study on the crisis of the modern education reform research for the Visual formulations," *Jou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Vol. 4, pp. 163 - 197, 2001.
- [12] B. H. kim, "Elementary Learning and Great Learning as Confucian Character Education," *Philosophy of Education*, Vol. 19, pp. 19-31, 2001.
- [13] Kyoung-Ja Lee, "Loyalty and Respect shown in the contemporary educational thought of Sohak's,"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0.
- [14] Sang-Won Lee, "Study on National Ethics Characteristics of Lee Dynasty Sohak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1984.
- [15] Seong-Ki Kwak, "A Study on Educational of Lee Dynasty Sohak," Th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1988.
- [16] Yong-Ju Lee,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ohak to elementary mor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4.
- [17] J. Y. Chol, "A Study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Sohak』 in Elementary Moral Education," *Korean Elementary Moral Education Society Conference Special Issue*, pp. 49-60, 2012.
- [18] Y. S. Cho, A. Y. Kim, H. S. Im, D.J. Sin, A. M. Cho, I. J. Kim, "Component Factors of Desirable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28, No. 1, pp. 131-152, 1998.
- [19] D. W. NamKung, "Theory of Humanism Education," Seoul: Moonumsa Publishing Company, 1999.
- [20] J. Hyun, S. K. Choi, S. H. Cha, D. Y. Ryu, H. K. Lee, "Research analysis on the condition of school's character education: focusing on Middle Schoo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9.
- [21] N. S. Jo, "A study of developing Character evaluation scal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 2004.
- [22] B. H. An, Y. R. Won, C. M. Han, "Analysis of School Character Educ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Character Education," *Gangwon-do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Research Report*, 2004.
- [23] S. B. Kang, E. S. Park, G. S. Kim, S. J. Song, Y. K. Chung, Y. R. Kim, M. S. Ko, "A Foundational Study for the Vision of Education for the Human Nature for 21st Century,"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 30, pp. 1-38. 2008.
- [24] H. C. Lee, "Sohak," Seoul: Myungmundang Publishing Company, 1987.
- [25] J. W. Kim, "Efficacy Analysis of Developed Course for Promoting Character Education with Women's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1, pp. 481-491, 2015.
- [26] D. M. Kim, "A study on the class of education that builds students' character through films - Classes at the University of Liberal Arts -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 309-314, 2015.
- [27] J. W. Kim, "Efficacy Analysis of Developed Course for Promoting Character Education with Women's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1, pp. 481-491, 2015.

차 현 주(Cha, Hyeon Ju)



- 1988년 2월 : 중앙대학교 교육학 학사
- 2009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예대학 석사
- 2013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박사수료
- 2007년 3월 ~ 현재 : 한국글로벌인재개발연구원장

- 관심분야 : 부모양육, 인성교육, 심리측정, 영재판별, 유아인성교육, 가족생활교육, 가족정책
- E-Mail : hjcha2016@gmail.com